

# Beyond the Horizon의 神話原型的 分析

李 幸 洙

## 目 次

- |               |            |
|---------------|------------|
| 1. 序 言        | 4. 救援의 可能性 |
| 2. 人間 運命의 悲劇性 | 5. 結 語     |
| 3. 選擇의 誤謬     |            |

## I. 序 言

1915年에서 1930年 사이의 가장 중요한 연극발전의 기간동안 Eugene O'Neill이 美國劇界에 찬란한 꽃을 피워놓았음은 周知의 사실이다. 1915年 이후 미국 연극에서 가장 눈에 띄는 추세는 유럽 연극의 다양한 기교의 모방과 사실주의와 사회에 대한 비판 등이었다. O'Neill은 이러한 추세를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거기에 뛰어난 獨創性을 發揮하여 문제성과 다양성을 지니는 독특한 작품세계를 確立하였다. 그러면서도 그의 作品世界는 어느 限定된 特性을 지닌 것으로 局限할 수 없는 바, 그것은 그의 끊임없는 실험정신 때문일 것이다.

대화에 抒情性을 賦與한 것이라든가 *The Gerat God Brown*에서 mask를 사용하는 놀라운 考案이나 *The Emperor Jonse*에서 drum을 사용한 方法, *Desire Under the Elms*에서 보여주는 무대배경의 革新的인 사용등, 그외에도 多樣한 style의 試圖와 여러가지 思想의 主題, 心理學 理論의 適用 등으로 그의 作品世界는 다채롭다.

O'Neill이 작품에서 다룬 主要主題는 自我正體(identity)의 追求와 疏外意識의 問題, 物質主義와 精神世界사이의 영원히 和解할 수 없는 葛藤, 자연의 不可抗力의인 힘과 인간과의 관계 등이다. O'Neill의 生에 있어서의 主된 관심사도 自己正體에 대한 追求였고 自己正體를 추구함에 있어 個人相互間의 葛藤, 個人과 社會와의 갈등, 또는 人間의 自然과의 鬭爭, 人間의 神에 對한

渴望 等を 素材로 하여 끈질기게 그 主題에 穿鑿하였다.

*Beyond the Horizon*은 O'Neill이 수편의 단막극으로 習作期를 거친 후에 1918년에 完成한 첫 長幕劇으로서 pulitzer prize를 탄 작품이다.

Alexander Woollcott는 이 작품을 가리켜 분위기와 淡泊한 藝術性이 있는 훌륭한 작품이라고 極讚하고 있다.

...a play which, for all its looseness and a certain high-and-mighty inpracticability, is possessed of elements of greatness. This was *Beyond the Horizon*, a vital and valid tragedy by Eugene O'Neill—a play that is as native as *Lightnin* and which has the mood, the austerity and, all in all, the stature of a novel by Thomas Hardy. Seldom has an American playwright written for our theatre a piece half so good and true.<sup>1)</sup>

이 작품은 한 詩的 氣質을 가진 청년이 이루어지지 않는 꿈과 언제나 인간의 욕망과는 엇갈리게 마련인 不可抗力때문에 不幸해 하다가 병에 걸려 죽고 마는, 인간운명의 비극적인 면을 다룬 연극이다.

本論文에서는 *Beyond the Horizon*에서 볼 수 있는 人間 慾望의 屬性을 分析해보고 주인공의 생의 비극이 어디에서 緣由하는 것인지를 살펴봄으로써 O'Neill이 인간의 비극적 인생 속에서 무엇을 추구하고자 했던 것인지를 분명히 해보고자 한다.

그러나 그러한 인간의 悲劇的인 屬性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한 인간이 破滅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작품의 마지막 장면이 提示하는 救援의 가능성에 力點을 두고, 그러한 면을 神話批評的인 입장에서 분석해보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目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目的을 가지고 接近함에 있어서 Nothrop Frye의 이론에 立脚하여 形態論的인 構造의 분석을 겸하여 이 작품의 構造와 意味를 聖書神話 原型과 결부시켜 해석해보고자 한다.

Frye가 말하는 원형(archetype)은 古代神話나 原始社會의 儀式 가운데에 存在하고 있으면서 時間을 超越하여 現代의 문학작품에 再現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Frye는 이 원형을 고대의 風饒의 儀式에 나타난 죽음과 再生, 구약성서에 보이는 樂園, 그리스사상의 傳統을 繼承한 황금시대에 추구한다. 그는 神話의 가장 완전한 형식은 그리스도교의 성서 속에 있다고 한다. 인류는 그 옛날 낙원이나 황금시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喪失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同一性의 喪失과 回復을 말하는 이야기는 모든 문학의 기본적 構想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구상을 기본으로 하여 이 작품의 주인공이 경험하는 상실과 회복을 神話批評的인 입장에서 분석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1) Oscar Cargill (ed.), *O'Neill and His Plays*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61), p. 135.

## 2. 人間 運命의 悲劇性

詩的인 氣質을 지닌 젊은 知性人 Robert Mayo는 집안에서 하는 농장일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숙부를 따라 항해를 떠날 차비를 하고 있다. 극이 시작되면서 우리는 처음으로 인생의 갈림길에 서있는 주인공을 대하게 된다. 浪漫的인 心性을 지니고 연약한 체구를 가진 그는 언제나 먼 바다를 憧憬하고 있다. 그의 형 Andrew는 농장일에 만족하고 소꿉친구였던 애인 Ruth와 결혼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Robert는 고향을 떠나기 전에 형이 사랑하고 있는 Ruth에게 사랑을 고백한다. 그때 Ruth는 그녀가 사랑한 것은 형이 아니라 Robert라고 고백한다. 그러자 Robert는 逃避의 계획을 拋棄하고 그녀와 결혼하게 된다. 대신 Ruth의 선택에 실망하고 挫折당한 Andrew가 항해를 떠나게 된다. Robert, Andrew, Ruth 등 세 사람의 잘못된 선택은 각기 그들을 그들이 適應할 수 없는 세계에 처하게 만든다. 이 세 사람은 각자 한 사람도 구체적으로 주어진 狀況下에서 어떠한 선택이 자기 인생의 所望하는 目的을 達成하는 最善의 것인가를 眞摯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가고자 하던 길 대신 다른 길을 선택했을 때의 결과를 전혀 가늠해보지 않고 即興의 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本質에 맞지 않는 選擇에 따르기 마련인 慾求不滿의 苦痛 역시 겪어나갈 意志가 隨伴되지 않는 것이다.

Robert는 無氣力하고 氣質的으로 농장일에 맞지않아 농장은 점차로 疲弊하기에 이른다. 그가 자신의 순간적 선택의 결과를 分明히 알 수 있었다면 그의 결정은 달랐을 것이다. 원망과 憂鬱에 잠긴 아내가 실은 언제나 형을 사랑하고 있었음을 Robert가 깨달았을 때는 이미 때가 너무 늦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실패하는 까닭의 하나는 바로 그들이 결정을 하기에 이미 늦은 때에야 비로소 올바른 선택이 무엇이었어야 했는가를 알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농장과 Ruth를 떠나 성공하여 부자가 되어 돌아온 Andrew도 사실은 행복하지 못하다. Andrew는 성공하여 농장으로 돌아왔을 때 廢墟에 둘러싸여 肺病으로 죽어가고 있는 동생 Robert를 發見한다. 죽어가면서도 여전히 Robert는 水平線너머의 自由를 꿈꾸고 Ruth와 Andrew의 和解를 빈다.

以上 *Beyond the Horizon*의 줄거리를 살펴보았는데 작가는 이 작품에서 現代生活을 다루면서도 그 속에 古典的 悲劇의 效果를 成就하려는 意圖를 갖고 있음을 엿볼 수가 있다. O'Neill은 이렇게 人間과 自然과의 관계, 다시 말하면 人間과 人間以外的 힘과의 관계를 다루는 가운데 人間の 참모습, 또는 人間運命의 悲劇的 측면을 提示해주고 있다.

Robert는 농장 일에 適合치 않아 농장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고 싶어하는 인물로 등장하는데 인간이 자연과의 調和를 잃어버린다는 것, 다시 말하면 “not belong”의 의식은 과거와 현재에 不變하는, 인간의 자연과의 對立에서 不可避하게 오는 비극임을 작가는 傳達하고자 한다.

O'Neill은 다른 작품인 *The Hairy Ape*에 대해서도 그점을 지적하고 있다.

The subject here is the same ancient tone that always was and always will be the one subject for drama. *The Hairy Ape* was a symbol of man, who has lost his old harmony with nature.<sup>2)</sup>

옛날에 누렸던 自然과의 調和를 잃어버리고 아직 精神的 均衡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담 이후 現代에 이르기까지의 人間의 不可避한 상황인지 모른다.

이 작품에서의 두 형제의 비극은 그들이 어울리지 않는 生の 舞臺를 선택했다는 데서부터 出發하는 것 같다. 이러한 비극적 출발에 대하여 論하기에 앞서 人間の 基本的 要求에 대한 心理學的인 理論을 먼저 살펴봄이 論理展開에 必要的인 序頭가 될 것 같다.

人間行爲의 第一次의인 動機가 되는 것은 물론 生理的으로 條件지어지는 自己保存을 위한 要求일 것이다. 간단하게 이것을 말하면 사람은 먹고 마시고 잠자며 敵에 對하여 自己를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 이 모든 것을 위해 사람은 노동하고 생산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이리하여 個人에게는 한 經濟 體制의 特殊性에 의해서 決定되는 生活 樣式이 人間の 全般的 性格構造를 결정하는데 第一次의인 要素가 된다. 自己保存을 위한 必須的인 要素로 인하여 그가 살지 않으면 안될 生活條件을 받아들여야 강요되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의 人格이 特殊한 生活樣式에 의해서 形成되어진다는 것을 意味한다. 生理的인 要素만이 人間性的인 必須不可決한 부분은 아니다. 그외에도 그와 똑같은 強制的인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身體的인 過程 속에 뿌리박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人間の 생활 양식과 습관의 本質, 그 自體에 起因되고 있는데 外部世界와 關係를 가지려는 要求와 孤立을 避하려는 要求가 그것이다. O'Neill 作品에서 느껴지는 緊張感은 그의 주인공들이 疎外되지 않으려고 투쟁하는데서 緣由하는 느낌일 것이다. O'Neill 자신도 그랬듯이 그의 주인공들은 神이나 사랑, 또는 人生에의 믿음이 없는 世界에서는 끊임없이 불안과 渴症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The tension in his work are nearly always connected with his struggle against alienation. The secret of his dramatic intensity is to be found not in his theatricality but in his rebellion and anger, in an inability to resign himself to an arid view and way of life. He could not be at ease in a world without God, without love, and without trust in life.<sup>3)</sup>

완전히 孤立되고 隔離되어 있다고 느끼는 것은 마치 肉體的인 飢餓가 죽음을 가져오는 것처럼 精神的인 破滅을 가져온다. 人間에게 必然的으로 고립과 정신적 고독을 回避하려는 요구가 있다는 측면에서 *Beyond the Horizon*의 주인공들은 O'Neill의 다른 작품의 주인공들과 마찬가지로 각기 소외된 삶의 領域에서 고립 상태에 빠져 있음을 볼 수 있다.

2) B. H. Clark, *A History of Modern Drama* (New York: Dover, 1947), p. 686.

3) John Gassner (ed.), *O'Neill*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Inc., 1964), p. 169.

작품의 처음에 나타나는 배경은 水平線과 길과 들판의 경계선 등으로 나뉘어진 모습을 제시해 주고 있다.

A section of country highway. The road runs diagonally from the left, forward, to the right, rear, and can be seen in the distance winding toward the horizon like a pale ribbon between the low, rolling hills with their freshly plowed fields clearly divided from each other, checkerboard fashion, by the lines of stone walls and rough snake fences.<sup>4)</sup>

하나의 wholeness를 이루고 있는 自然이 인간의 要求와 慾望에 의해 나뉘어져 있으며 서로 分離된 世界 속에 存在해 있는 人間 狀況을 暗示받을 수 있는 背景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背景을 뒤로 하고 등장하는 Robert의 모습은 詩的인 氣質이 엿보이며 거기에 책을 들고 있는 모습이란 것은 自然과 一體되지 않는 兩立 不可能性的의 乖離感이 있음을 느끼게 해준다. 반면에 그의 형 Andrew의 모습은 구리빛으로 탄 얼굴과 건장하고 남성다운 체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동생과는 대조적인 인물임을 알 수 있다. 형에게서는 知的인 면을 볼 수 없으며 'a son of the soil'이라고 부를 정도로 흙냄새가 풍기는 인물로 등장한다. 그런데 시적인 기질을 갖고 있는 Robert가 농장 일을 하도록 남게되고 흙의 아들이라 불릴 수 있는 형이 흙을 떠나게 된다는 것은 운명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배경의 사과나무와 뱀처럼 보이는 낮은 울타리들의 묘사에서 독자는 에덴동산을 聯想할 수 있으며 不順從으로 因하여 神과 分離되어버린 인간의 비극적 狀況을 暗示받을 수 있다. 墜落 以前의 인간은 신의 뜻에 따라 만물을 支配하며 地上에서 繁榮을 누리고 자연과 和合하여 살 수 있었다. 그러나 善惡을 알게 하는 나무의 實果를 따먹지 말라는 禁忌를 깨뜨린 것은 satan의 誘惑이었지만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한 人間에게 그 以後로 신은 詛呪를 내린 것이다. 그것은 신과의 벽을 쌓게 한 죄(original sin)이며 그 때부터 땅은 저주받았으며 인간에게 뱀흘려야 먹을 것을 구하게 되는 고달픈 運命이 주어진 것이다.

O'Neill은 인간의 原罪意識에서 벗어나려 했고 puritanism을 극복하려고 노력했으나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그에 매이게 되었다고 한다.

Man is born guilty—O'Neill attempt to rid himself of puritanism seems to have brought him round to a metaphysical confirmation of its basic tenets—and the more he tries to clear himself of guilt the more entangled he becomes in it.<sup>5)</sup>

Robert가 詩를 읽는 것은 禁斷의 과실을 먹으면 눈이 트여 신과 같이 된다는 satan의 유혹의

4) Eugene O'Neill, *Beyond the Horizon: Reading Drama*, ed. Fred B. Millett (New York: Harper & Brothers) p. 140. The references following each excerpt are to the pages in this edition.

5) John. Gassner, *Ibid.*, p. 107.

結果이며 自然과의 遊離가 불가피하게 된 인간 운명을 상징해주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느 한 곳에도 定着하여 滿足하지 못하고 계속 고독하게 彷徨하는 카인의 後裔들의 운명을 얘기하려는 것도 같다. 다음과 같은 Robert의 얘기에서도 그런 뜻을 읽을 수 있다.

...What I want to do now is keep on moving so that I won't take root in any one place.  
It's just as hard for me, Andy—believe that! I hate to leave you and the old folks—but I feel I've got to. There's something calling me—(Act I, Scene I, p. 143)

떠나기는 싫지만 신의 뜻에 따라 에덴에서 追放될 수 밖에 없었던 인류 조상의 운명처럼, 떠나기는 싫지만 뭔가 손짓하여 부르는 것이 있다는 Robert의 막연한 憧憬에는 운명적인 비극성이 엿보인다.

### 3. 選擇의 誤謬

인간에게는 所屬되기를 바라는 요구가 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神, 또는 自然, 그리고 이웃과 가족, 社會 等과 연결하여 連帶感을 느끼고자 하는 慾求인 것이다. 그런데 O'Neill극의 주인공들은 이러한 連帶感을 喪失함으로써 고독과 不安에 처해있게 되는 경우가 많다. 만일 인간이 어디에 소속되지 않거나 또는 그 生活에 意味와 方向을 부여해주는 어떤 組織과도 관계를 맺을 수가 없게 되면 마침내 無力感에 壓倒되고 만다고 한다. Robert에게 닥친 폐병이라는 병마는 이러한, 인간의 根本的 무력감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아일랜드 사람들에게 있어서 폐병이란 신이 주신 罰이라고 여기는 認識이 있었기 때문이다.

Robert는 자신이 認定하고 있듯이 자신은 농사일에 적합치 않다고 하면서 스스로의 환경에서 자신을 疎外시키고 있다. 주어진 條件에 順應하기보다는 끊임없이 조건에의 反逆을 試圖하며 생과 싸워나가야 하는 것이 인류의 始初부터 주어진 宿命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O'Neill은 자신의 연극의 觀衆이, 무대 위의 인물이 奇妙한 運命을 征服하는게 아니고 끊임없는, 妙한 운명과 싸워 나가는데서 滿足을 얻기를 바란다고 하며 悲劇을 人間의 本質的인 要素로 생각하고 있다.

The tragedy of Man is perhaps the only significant thing about him. What I am after is to get an audience leaving the theatre with an exultant feeling from seeing somebody on the stage facing life fighting against the eternal odds, not conquering, but perhaps inevitably being conquered. The individual life is made significant just by the struggle.<sup>6)</sup>

6) Raymond Williams, *Modern Tragedy* (California: Stanford Univ. Press, 1966), p. 116.

이와같이 인간은 자기가 처해있는 조건과의 싸움이 불가피한 悲劇的 存在임을 前提로 하는 것이 O'Neill 극의 출발점이 아닌가 싶다.

모든것이 神의 은혜로서 허락되어 있던 狀況에서 인간은 罪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이후 自然과 투쟁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던 것이다. 知識을 더해감으로써 自然을 支配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자연의 一部이면서 또한 자연과 分離되어가고 있을뿐 超越할 수 없는 모순된 운명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Robert가 고향을 떠나는 이유는 넓은 천지의 自由를 찾아가는 것, 神秘와 美를 찾아가는 것이라고 한다.

Supposing I was to tell you that it's just Beauty that's calling me, the beauty of the far off and unknown, the mystery and spell of the East which lures me in the books I've read, the need of the freedom of great wide spaces, the joy of wandering on and on—in quest of the secret which is hidden over there, beyond the horizon? Suppose I told you that was the one and only reason for my going? (Act I, Scene I, p. 144)

Robert가 美와 神秘와 自由를 찾아 떠나갓다던 수평선 너머로의 여행을 포기하고 자신에 맞지 않는 환경을 選擇하는 것은 人間歷史의 시작이 選擇이라는 행동에 있었다는 점을 想起시킨다.

Robert의 이 최초의 自發的인 선택은 잘못된 선택때문에 에덴으로부터 追放당해 방황하며 생과 對決하고 苦痛 당하는 인류의 狀態와 관련되어 그의 선택의 결과가 어떠하리라는 것조차 豫示해준다.

Alexander Woolcott도 역시 Robert는 타고난 適性을 制止당하고 그에게 적성이 맞지않는 일에 얽매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sup>7)</sup>

그러나 Robert의 判斷은 外部的인 壓力에 依해서가 아니고 사랑이라는 感情에 이끌린 結果였다. 누구에게도 잘못된 결과의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선택이었다.

선택의 결과는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의 破壞였다. first class farm이었던 Mayo 집의 농장은 Andrew가 떠난 후부터 荒廢해져가고 가구, 집 등 사람들까지 零落해 버린다. 모든 것이 말끔하게 정돈되어 있고 깨끗하던 Act one의 무대는 Act two로 넘어오면서 다음과 같이 변한다.

The room has changed, not so much in its outward appearance as in its general atmosphere. Little significant details give evidence of carelessness, of inefficiency, of an industry gone to seed. The chairs appear shabby from lack of paint; the table cover is spotted and askew; holes show in the curtains; a child's doll, with one arm gone, lies under the table; a hoe stands in a corner; a man's coat is flung on the couch in the rear; the desk is cluttered up with odds and ends; a number of books are piled carelessly on the sideboard. (Act II, Scene I, p. 171)

7) Travis Bogard, *The Plays of Eugene O'Neill*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2), p. 117.

더러워진 커튼이나 떨어진 모기장, 칠이 벗겨진 의자, 한쪽 팔이 떨어져나간 인형, 흩어진 책 더미들은 이 집안에 사는 사람들의 부주의와 무능력을 代辯해 주고 있다. 사실적 묘사를 통한 변화된 外部모습은 등장 인물의 內面的 變化를 象徵적으로 잘 나타내주고 있다. 즉 쇠퇴해가는 農家の 모습은 Robert와 Ruth의 사랑의 枯渴과 精神的 不調和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다.

2막이 오르면서 Mrs. Mayo와 Mrs. Atkins가 등장하는데 두여자 모두 喪服을 입고 있으며 힘 없고 슬픈 표정으로 生의 의지력을 잃고 있는 모습이다. 하루중의 시간의 經過는 1막의 황혼녘에서 2막은 正午로 되어있다. 물론 그동안의 세월의 경과는 삼년이나 지나고 있지만 시간을 태양의 日沒時刻에서 正午로 變化시키면서 O'Neill이 주로 쓰고 있는 循環의 pattern을 통한 人生 回歸思想을 나타내려 하고 있다. 時間의 변화와 더불어 사랑하던 사람들의 감정의 변화, 살아있던 사람의 죽음, 生氣넘치던 젊음의 쇠퇴, 肥沃하던 땅의 荒蕪化 등의 悲劇的 變化가 進行된다.

Robert은 삼년간이나 농사일을 배워왔지만 그는 自然을 잘 다스리지도 못하고 자연과 친숙해지지도 못한다.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지만 成就되는 것은 없이 家勢는 기울어버리고, 2막의 序頭에서부터 Mrs. Atkins와 Mrs. Mayo는 서로 잘못되어가는 상태를 두고 非難과 원망을 퍼붓는다. 그것은 Ruth에게로 이어지고 Ruth는 Robert를 원망하며 다시 Andrew라면 잘했을 것이라는 선택의 誤謬에 대한 悔恨을 나타낸다. 創世紀 神話에 나타난, 아담의 이브에로의 責任 轉嫁, 카인의 辨明 등을 聯想케 하는 場面이다. 心理學的으로 인간은 환경의 必要에 의하여 그 자신을 適應시켜가는 사이 그 적응 대상에 對해 敵愾心을 갖거나 強要하는 그 환경 때문에 새로운 不安을 일으키게 된다.<sup>8)</sup>

Robert은 현실과의 衝突을 回避하기 위해 자꾸만 더 책속에 파묻히려 하지만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마찰은 심해지고 葛藤은 增加된다. 근본적으로 Robert의 自我는 점차 弱화되어 그는 無力感和 極端的인 不安을 느낀다. 그는 자기가 살고 있는 세계와 바람직한 관계를 상실한다.

다음과 같은 Robert와 Ruth와의 대화에서 그들의 현실이 얼마나 황폐하고 調和를 잃어버린 상태인지를 알게된다.

RUTH:(*after watching him irritably for a moment*). For heaven's sake, put down that old book? Don't you see your dinner's getting cold?

ROBERT:(*closing his book*). Excuse me, Ruth. I didn't notice. (*He picks up his knife and fork and begins to eat gingerly, without appetite*). (Act I, Scene I, p 180)

Robert가 선택한 자연은 결국 그와 和解하지 못하고, 그는 스스로 선택한 인생에 성공적인 적응을 하지 못한다. 어머니인 Mrs. Mayo는 Robert가 운이 나빠서 그렇다고 감싸려고 하지만 장모인 Mrs. Atkins는 하려고만 하면 할데데 도대체 Robert가 代를 물려받은 뒤부터는 되는 일이 없다고 불평한다. 높은 이마와 크고 검은 눈에 詩人다운 기질을 담은 크고 늘씬한 청년이 삼년

8) Freud, *On Psychopathology* (New York: Penguin Books Ltd., 1962), pp. 221-226.



뒤엔 무거운 짐을 진것 같이 어깨가 굽고 눈은 흐릿하고 생기가 없으며 입술은 처지고 모든 것을 斷念한 듯한 표정으로 바뀌어 등장한다.

다음과 같은 指摘처럼 Robert는 O'Neill이 *Beyond the Horizon*을 쓰던 무렵의 挫折된 모습으로 자기 환경에 소속감을 갖지 못하는, 부조화된 人物이 되어버린다.

Robert was a man who was out of harmony with his environment, who could not "belong" and who therefore was condemned to live between hope's eternal optimism and the inevitability of despair. *Beyond the Horizon* is thus a summing up of O'Neill's early years as a playwright.<sup>9)</sup>

Robert가 선택한 사랑도 결국은 그가 읽는 책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적합치 못한 대상임이 確實해지면서 작품의 비극성은 뚜렷해진다. 다음과 같은 Ruth의 뼈저린 후회는 인간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苦痛스러운 結果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 될 것이다.

What do you think—living with a man like you—having to suffer all the time because you've never been man enough to work and do things like other people. But no! I s'pose you think I ought to be proud to be your wife—a poor ignorant thing like me! But I'm not. I hate it! I hate the sight of you. Oh, if I'd only known! If I hadn't been such a fool to listen to your cheap, silly, poetry talk that you learned out of books! (Act II, Scene I, pp. 185-186).

이에 맞서서 Robert 또한 자기가 사랑했다고 생각한대로의 Ruth가 아님을 외치며 선택의 輕率함에 대한 후회를 곱씹는다. Robert는 저녁시간에 언제나 늦게서야 들어오는데, 다른 작품에서처럼 식사 시간에 家長이 제시간에 맞춰 식탁에 앉지 않는다는 것은 가정의 사랑과 和睦이 깨져 있음을 暗示하는 것이다. 사실 O'Neill의 극에는 남녀간의 강렬한 사랑이 順理的으로 만족스럽게, 또는 창조적으로 具現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셈이다. 그들은 서로 가까이 있으면서도 分離되고 隔離되어 있다고 느낀다. 이것은 聖書에 나오는 인간의 墜落에 대한 이야기에 포함되어 있다. 神은 인간을 에덴동산에 살게 하고 善惡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警告했다. 인간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않다는 생각에서 神은 女子를 創造했다. 男子와 女子는 하나가 되어야 했다. 이러한 에덴에서의 상황은 타락 이후에 극단적으로 변하여 남자와 여자는 곧 異性, 善惡의 意識, 分離된 存在로서의 서로의 의식때문에 그들의 원래의 一體性이 무너져서 서로 他人이 되었다는 의식을 갖게 되었다.

곧 이브는 아담조차 罪에 빠지도록 誘導하며 아담은 죄를 뉘키 위해 이브를 告發하고 그녀를 辯護해주려고 하지 않는다. 이 죄는 바로 우리 인간의 삶 속에 뿌리박고 있다. 하나님의 意志를 拒逆한 인간의 의지와 감정은 결국 끝까지 인간 스스로 극복해야 할 敵이 되었다는 주장도 가능할 것이고 또 그것이 O'Neill의 人間觀이었으리라고 생각된다.

9) Travis Bogard, Ibid., p. 126.

나을 遺憾스러운 것은 Ruth 자신이 사랑한 것은 Robert가 아니라 Andrew였다고 고백하는 것이다. 禁斷의 열매에 기울어지는 인간 본래의 욕망의 屬性을 보는 것과 같다. 얻은 것에 대한 失望과 얻지 못한 것에 대한 憧憬이 인간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Robert는 애초에 아저씨를 따라 배를 타고 떠나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그 이유들 중 하나를 Ruth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했었다. 형과 Ruth가 사랑하는 사이라 믿었고 자신은 孤立되어 있는 존재로 믿었기 때문에 어쩌면 심리적으로 그 고립된 상태를 피하기 위하여 떠나려 했었던 것인지 모른다. 그것은 Ruth가 자기를 사랑함을 알고 곧바로 떠나려 했던 첫째 이유는 考慮해 보지도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는 쪽을 선택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이다. 신은 아담이 혼자 있음이 좋지않다고 여기고 그에게 사랑의 짝을 만들어주었다. 그래서 인간은 本能的으로 사랑의 짝을 찾아 고립되지 않으려는 강한 욕구가 있는 것인지 모른다. 그리고 사랑은 서로 분리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욕구로부터 出發하여 분리된 個體가 습하여 일체가 되려고 하는 感情일 것이라면 Ruth와 Robert의 상태는 이미 일체가 되기 어려운 사랑의 枯渴, 또는 애초부터 일체가 되기 어려운 兩立不可能의 要素들을 안고 있는 상태인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는 讀書의 世界로, 또 하나는 멀리 떠나버린 대상에게로 마음을 줌으로써 서로를 疎外시키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다음 글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무엇보다도 그런 精神的인 고립과 소외에 인간 개개인으로서의 비극이 있는 것이라 하겠다.

Tragedy, inevitably, has been shaped by this division. And then there is personal tragedy: men and women suffering and destroyed in their closest relationships: the individual knowing is destiny, in a cold universe, in which death and an ultimate spiritual isolation are alternative forms of the same suffering and heroism.<sup>10)</sup>

인류 최초의 自由選擇에 隨伴되었던 근본적인 분열인 고독의 고통이 검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自發的 行動으로 自我를 實現하여 자기 자신을 外部世界와 연결시킨다면 고립된 原子로 遊離되지는 않는다. 문제는 Robert가 자신을, 외부세계, 自然 또는 가족과 연결시켜 조화를 꾀하지 못하고 저만의 세계로 파고들어 더욱 소외를 助長했다는 데에 있는 것이다. 땅도 그의 기대를 저버리고 有能한 일꾼들도 그의 농장을 떠나버렸을 때 Ruth마저 그에게 저주를 퍼부으며 자기가 사랑한 것은 Andrew였다고 외치니 Robert가 의지해야 할 現實의 대상은 하나도 남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의 딸인 Mary는 有—한 現實로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주었지만 그마저 죽었을 때 Robert가 外部現實과 자신을 和解시킬 희망을 잃게 된다. 그렇게 해서 Ruth와 Robert는 다같이 자유의지에 의해 선택을 해서 결혼하게 된 것이었지만 不幸하게도 자기들이 선택한 세계에 간혀버린 노예와 같은 모습으로 浮刻된다. Ruth는 Andrew가 처음 돌아왔을 때 자신의 신세타령을 하면서 새로운 自由를 渴望하는 아이러니칼한 자세를 보인다.

10) Raymond Williams. Ibid., p. 121.

I feel so free I'd like to have wings and fly over the sea. You're a man. You can't know awful and stupid it is—cooking and washing dishes all the time.(Act II, Scene II, p. 194)

그러나 머물러주길 바랬던 Andrew는 곧 떠나고 붙잡지 못하는 꿈때문에 Ruth는 몰래 흐느낀다.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의 자기 위치를 確定짓지 못함으로써 오는 불안감과 괴로움은 O'Neill이 평생 執着해있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기울어버린 Mayo 집안의 中軸인 Robert와 Ruth는 둘다 자신이 처한 위치를 確定짓지 못하고 먼곳에 있는 世界만을 동경함으로써 不安定한 生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에덴동산을 쫓겨난 인간은 그 不安定함을 이제는 神의 保護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적극적인 活動에 의해서 爭取해야한다. 그것은 주어지는 것을 享有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노력해야 하며 生産하는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이기에 아무런 幻想도 필요로 하지 않는 안정이다. O'Neill은 現實과 幻想間的 葛藤을 자주 主題로 삼았으나 이를 현실과 환상간의 차이가 아니라 두가지 현실, 즉 믿을 수 있는 현실과 認識되지 않는, 不可思議한 힘을 지닌 현실과의 乖離라고 한 Helen Muchnic의 말에도 一理가 있다.

The theme of O'Neill's play is not really the difference between illusion and reality, but the difference between two realities: one the reality of belief, the other the reality of the unrecognized and unacknowledgeable forces of existence.<sup>11)</sup>

Robert와 Ruth의 不幸은 그들의 현실에 대한 아무런 믿음이 없었다는데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Robert는 삶의 패배를 인정하면서도 다시 또 Andrew가 돌아오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幻想的 未來를 꿈꾼다. 언제나 현실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否定하고 미래의 헛된 約束에 속는 것이 인간 욕망의 속성인지 모르겠다. Ruth나 Robert의 비극도 그런데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有限한 인간에게 미래는 끝이 없이 펼쳐지지만 하는 것은 아니다. 죽음이라는 限界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 神으로부터 저주받은 이 땅의 삶의 宿命이다.

#### 4. 救援의 可能性

이미 出發點에서 잘못 선택한 것을 되돌이킬 수 없듯이 인간은 에덴에서의 자유선택 이후, 자기 힘으로 운명의 方向을 바꿀 수 없는 無力한 存在로서 物質이나 罪의 노예가 되어 사는 삶을

11) Helen Muchnic, "Plays by Gorky and O'Neill", in O'Neill, ed., John Gassner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 Hall, Inc., 1964), p. 107.

살 수 밖에 없다는 것이 O'Neill이 사로잡혀있던 人生의 前提일지 모른다. 肺病에 걸려 죽어가는 Robert를 두고 엇갈린 選擇에 대해 空虛하게 歎息하는 Andrew와 Ruth의 대화는 참으로 비극적이다. 구원자가 오지않는 人生은 矛盾된, 不幸한 過程을 지나 그냥 죽음의 결말을 맞이할 수 밖에 없게 되어있는 것이다. 人間의 原罪의 결과인 죽음에서 救援되기 위해 인간은 자신의 努力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사실 O'Neill은 Nietzsche의 영향을 받아 信仰을 버리긴 했지만 종교 이외에서의 人間救援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 Strindberg의 영향을 받은 表現主義 系列의 作品인 *The Hairy Ape*(1922)나 *The Great God Brown*(1926), *Lazarus Laughed*(1927), *Days Without End*(1934) 등에서 O'Neill은 인간구원의 可能性, 神에의 追求 등의 主題를 다루고 있다. 그중 *Days Without End*(1934)는 한 인간이 罪와 죽음을 克服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John Loving이라는 이중의 personality를 具現하고 있는 人物의 靈魂 鬭爭을 다루고 있다.

주인공은 觀客과 다른 등장인물들의 눈에 보이는 John과 觀客과 John의 눈에만 보이는 Loving으로 나뉘어져 內面的 人間과 外面的 人間으로 그 役割을 分擔하고 있다. John의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들이 믿던 신을 버릴 때 그의 內部에는 懷疑的이며 冷笑的인 Loving이 創造된다. Loving은 John에 맞서는 懷疑論者로서 無政府主義者, 社會主義者로 되어 세상을 遍歷하며 세상을 嫌惡하게 되고 Marx주의에 傾度되었다가 東洋의 神秘에 관심을 갖게되고 다시 希臘철학과 科學의 眞實에 관심을 기울인다. 인생을 轉력하며 John은 神父의 권유를 뿌리치고 Elsa와 결혼한 후에 Loving의 유혹에 이끌려 Lucy와 간통죄를 범한다. 죄에 빠져 煩悶하는 John에게 Loving은 自殺을 권한다. 그러나 John은 긴 고통 끝에 신부에게 죄를 告白하고 십자가 앞에 꿇어앉아 神의 사랑을 懇求한다. Loving도 John의 옆에 함께 앉아 John Loving의 저주받은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죽는다. Loving의 죽음으로써 John의 회의는 사라지고 그는 새로운 人間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John을 새로운 인간으로 탄생시키고 죽는 Loving은 John에게 內在되어 있던 人間的인 意志, 또는 感情的인 要素를 代表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O'Neill이 생각하는 구원의 조건은 인간이 개인으로서의 의지와 감정적 회의를 부정하고 神의 사랑을 구할 때라고 規定할 수 있다. *Beyond the Horizon*에서의 Robert와 Andrew는 *Days Without End*에서의 Loving과 John으로 볼 수도 있다. Andrew는 Robert에게나 Ruth에게나 絶望的 狀態에서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希望이다. 마지막 장면에 가서 Andrew가 God을 외칠 때 Robert는 비로소 땅으로부터 자유로와졌다고 歡喜에 찬 순간을 맞이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크다고 보아진다.

You mustn't feel sorry for me. Don't you see I'm happy at last—free—free!—freed from the farm—free to wander on and on—eternally! It isn't the end. It's a free beginning—the start of my voyage. I've won to my trip—the right of releas beyond the horizon! (Act III, Scene II, p. 225)

Andrew가 돌아오고 Robert가 죽어가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행복하게 외치는 것은 Loving이 죽고 John이 완전한 새 인간으로 구원받는 것과 같은 pattern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Lazarus Laughed*에서도 O'Neill은 Lazarus의 웃음을 통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려 하고 있다. 육체의 죽음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개념을 부정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순수한 기쁨의 웃음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Lazarus는 "There is no death!", "Death is dead! Fear no more!"<sup>12)</sup>라고 외치면서 가족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럼으로써 그는 사람들에게 죽음을 초월한 救援의 세계가 있음을 傳播한다.

인간의 생명은 幼年時代로부터 죽음에 이르고 새로운 생명이 되어 다시 탄생한다. 그래서 많은 원시적인 전설과 신화는 인간의 생명과 자연의 생명의 중심을 循環現象과 密着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O'Neill극의 構成技法의 特徵인 이 순환 pattern은 *Beyond the Horizon*에서 최초로 등장한 기법이며 이 기법을 통해 O'Neill은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인간 운명의 回歸性과 人間慾望의 끝없음 등을 효과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다. O'Neill은 죽음이라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認定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精神에 의해 到達할 수 있는 幸福과 自由의 나라를 假設함으로써 죽음이 끝이라는 절망적 생각과 和解할 수 있기를 바랐던 것 같다.

Robert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떠오르는 태양을 가리키며 "Remember!"라고 외치고 있다. 이 작품의 서두는 해가 지는 장면에서 시작하여 태양이 떠오르는 장면을 마지막으로 하고 막이 내린다. 인생의 새로운 선택과 출발이 되는 시점에서의 背景이 죽음을 상징한다고도 할 수 있는 日沒의 장면인 것과 Robert가 죽어가는 마지막에 日出의 장면으로 그 背景을 삼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이면서 작가의 의도가 담긴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다. 自然속에서도 가장 뚜렷하게 反復과 回歸의 특징을 갖는 것은 循環현상이고 태양은 대표적인 순환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하늘에 떠올라 어둠 속에 묻혔다가 다시 돌아온다. *Desire Under the Elms*에서도 Eben과 Abbie는 비록 不倫의 罪에 빠졌지만 마지막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서로에 대한 진정한 理解와 사랑에 到達하면서 恍惚感에 젖는다. 태양은 여기서도 인간 운명의 순환을 암시하면서 새로운 再生의 삶을 상징한다.

*Beyond the Horizon*의 서두에서 Robert는 희망에 차서 항해를 통한 미래를 꿈꾸고 있다. 수평선 너머의 아름다움과 신비를 추구하고 있다. 그런데 그는 그 희망과는 반대되는 절망적인 삶을 통과하여 결국 극의 끝에 가서 죽음을 절망적으로가 아니라 희망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자유로운 시작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런 사상은 삶을 絶對적으로 肯定함으로써 永劫回歸思想을 體得한 Nietzsche의 영향일 것이다.

Normand Berlin은 Robert의 이러한 肯定的인 sentiment가 극에 不確實한 結論을 부여하게 했다고 하면서 결말이 극의 缺點中의 하나라고 한다.

Robert's positive sentiment, at the end of a decaying process, gives the play an uncertain conclusion. Should we take Robert's attitude at face value? Is this the finer realization to which his life has led him? Or is it merely illusion, the kind of pipe dream found in many of O'Neill's plays? .....The play has faults—perhaps the ending is one.<sup>13)</sup>

12) Eugene O'Neill, *Nine Plays* (New York: The Modern Library, 1954), p. 337.

13) Normand Berlin, *Eugene O'Neill* (London: The Macmillan Press Ltd., 1982), p. 53.

그러나 筆者는 이 극의 결말을 보다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아서 Robert가 죽음을 희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의 感傷主義나 또는 幻想때문만은 아닌것으로 본다.

聖書原形의 時點에서 보면 인간은 悲劇的 選擇으로 始作되는 人生의 囚人으로 이 땅에서 고통 받고 살 수 밖에 없었지만 인간에게 단지 그 마음을 神을 향해 돌이킴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것이다. 죽음 앞에 선 Robert의 희망은 “There is no death! There is only life! There is only laughter!”라고 외치는 Lazarus의 福音과 신의 사랑 속에서 되찾은 John Loving의 웃음과 같이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O'Neill이 宗教的 救援을 역설한 것은 아니지만 작품의 背景에서부터 성서원형적 의미와 연결해볼 수 있는 餘地가 있다고 보아서 筆者는 그러한 측면에서 O'Neill이 이 땅에서 삶과 투쟁하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도 죽음을 超越하여 그 靈魂이 救援될 수 있는 可能性을 提示해준 것으로 작품을 해석해 보았다.

이 救援이라는 사실은 잃어버린 合一의 再獲得으로써 곧 구원자와의 合一인 同時에 인간들 相互間의 合一의 回復으로서 죽음을 克服하게 해준다. Andrew가 Robert의 죽음 후에 분노를 갈아얹히고 Ruth에게 “We must try to help each other.” (Act III, Scene II, p. 226). 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새로운 結合의 可能性까지를 희망적으로 암시해주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럼으로써 한 사람의 죽음이 인간 상호간의 再和음을 이루는 거룩한 犧牲이 될 수 있을 것이다.

Robert가 숨을 거두면서 하는 몇마디 말들이 이것을 뒷받침 해줄 수 있다.

Ruth has suffered—remember. Andy—only through sacrifice—the secret beyond there—(Act III, Scene. II, p. 235).

Ruth는 자기의 사랑을 背反한, 增惡한, 存在일테데도 Ruth는 고통을 받아왔으니까, 자신의 죽음의 값으로 형이 그 고통에서 救援해주라는 부탁의 意味를 담고 있다. 自由意志의 濫用으로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줄곧 人生이라는 苦海속에 던져져 괴로움을 겪지않으면 안될 人類에게 메시아를 보내어 그를 犧牲시킴으로써 神과 人間사이에 가로막혔던, 罪로 因한 壁을 허물고 和解를 이룬 聖書의 原型과 一致를 이룬다.

Travis Bogard는, Robert가 말하는 sacrifice의 意味가 分明치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What Robert means by “sacrifice” is not clear. So that he can marry Ruth he drives Andrew from the farm, denies the power of the sea and proceeds then in a stumbling and incompetent course in a service, the land’s, for which he is not fitted.<sup>14)</sup>

비록 Robert가 이 생에서는 所望하던 바를 達成하지 못하고 환경에 敵應하지 못해 고통당했지

14) Travis Bogard, Ibid., p. 130.

만 그러한 地上에서의 고통스런 삶을 포기함으로써 그는 그만의 神을 發見하고 安息할 수 있는 세계를 꿈꾸며 죽어가는지도 모른다는 정도에서 Travis Bogard는 작품을 理解하고 있기 때문에 sacrifice의 의미가 不分明하다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筆者가 分析해본대로 Robert가 自身만의 幻想을 좇아 자기만의 죽음을 이긴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죽음을 통해 남은 Ruth의 人生이 구원되기를 바란 嘉賞한 뜻을 'sacrifice'라는 말 속에서 發見할 때 작품 이해의 폭은 더욱 넓어질 것이다.

따라서 Seth P. Ulman이 Robert는 자기의 시적 재능을 희생하게 만든 Ruth를 용서할 수 없었다고 하는 다음과 같은 견해는 再考할 餘地가 있는 것 같다.

The O'Neill man seems caught in a dilemma in which he has little choice but to sacrifice his creative gift to the love of his wife. This is indeed the basic problem in the two early plays *Beyond the Horizon* and *The Straw*. In the former play the artist and dreamer sacrifices his yearning to get 'beyond the horizon' and ties himself to an unproductiue farm in order to marry the woman he loves. This love ends in barren bitterness and hate. He never forgives the woman for the sacrifices she required.<sup>15)</sup>

## 5. 結 語

이 작품은 잘못된 선택때문에 悲慘한 人生을 살 수밖에 없었던 한 인간의 비극적인 生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삶이 悲慘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無辜한 神의 詛呪도 아니고 環境의 暴力도 아니었다. 그것은 純全히 그의 自由로운 選擇의 結果였다. 그는 애초에 人生의 美와 神秘를 찾아서 고향을 떠나 水平線너머의 먼 世界로 떠날 것을 계획했었다. 그러나 그의 그러한 계획의 裏面에는 生의 새로운 可能性을 追求하려 떠나겠다는 뜻외에 사랑하는 사람과의 結合의 不可能性때문에 오는 挫折을 잊으려는 또 하나의 動機가 숨어 있었다. 떠나기 직전 그러한 자기의 動機를 밝혔을 때 그는 굳이 떠나지 않아도 될 새로운 사실을 發見하게 되는 것이다. 그 時點에서 그는 生의 두갈래 길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機會가 주어지게 된다. 그러나 窮極의인 그의 선택은 자기의 素質과 계획에 充實한 선택이 아니었고 눈앞의 욕망때문에 即興의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는 데에 問題가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O'Neill에게 있어서 人間의 感情과 個人의 意志는 어찌면 人間이 살아나가면서 다스리고 극복해야될 最大의 敵인지도 모른다는 말이 적합한지도 모른다.

극의 배경에는 사과나무와 두갈래의 길이 나있다. 이러한 배경은 에덴동산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善惡果와 生命果中の 兩者擇一權을 聯想케 한다. 주어진 自由意志를 發揮하여 인간은 善惡

15) Seth P. Ulman, "The Archetypes of Greek Religeon in the Plays of Eugeno O'Neill", 「英語文學」(서울: 형설출판사, 1958), p. 44.

를 선택하게 되고 그 결과 신으로부터 苦役과 死亡이 있는 삶을 罰로서 받게 된다.

Robert는 即興的인 慾望에 기울어진 선택으로 인하여 땅과 鬭爭하지만 그에겐 幸福대신 苦痛과 疾病만이 掩襲한다.

작품을 平面的으로 理解하려고 할때, 주인공이 水平線너머를 憧憬하다가 결국 그 꿈은 挫折되어 버리고 병에 걸려 서글프게 죽어가는 것으로 밖에 결론지을 수 없을 것이다.

聖書에서도 禁斷의 욕망에 기울어진 인간의 선택은 결국 죽음이라는 저주를 불러왔지만 神의 계획은 그것으로 終末을 고하도록 되있는 것은 아니다. 犧牲의 피를 흘림으로써 인간의 失手와 罪를 容赦하고 그 靈魂의 永生을 약속해 두었던 것이다.

O'Neill은 독실한 Catholic 信者인 兩親 밑에서 자랐고 Catholicism의 영향을 받긴했으나 어머니의 약물중독으로 因한 苦惱와 자신의 罪責感 등으로 神을 부정하고 Catholic 신앙을 버리게 되었다. 그대신 Nietzsche에 耽溺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으나 본래 종교적인 기질을 지닌 그는 많은 作品에서 인간의 비극적 운명을 구원해줄 神, 또는 神的인 것을 추구했던 것이다.

사실 O'Neill은 神이 없는 現代人의 덜렘머에 상당히 着念했으며 일생동안 適當한 宗教를 찾으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그는 현대의 극작가가 이 時代의 병의 根源을 느끼는대로 파헤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했고 낡은 神의 死亡의 원인은 무엇이며 科學과 物質主義가 失敗한 원인은 무엇인가를 찾았고 살아있는 原始宗教的 本能을 위해 만족스러운 새로운 신이 주어져야 하며 그럼으로써 生의 의미를 찾고 죽음의 공포를 달래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The playwright today must dig at the roots of the sickness of today as he feels it—the death of the old God and the failure of science and materialism to give any satisfying new one for the surviving primitive religious instinct to find a meaning for life in and to comfort its fears of death with.<sup>16)</sup>

모든 문학양식이 근본적으로 그러한 것이지만 O'Neill이 *Beyond the Horizon*에서 發現하고 싶어 한 主題는 自然과 人間, 또는 神과 人間과의 동일성(identification)의 욕구로부터 나온 것이라 하겠다.

자기대신 항해를 떠났던 Andrew가 돌아온다는 사실이 절망에 빠진 Robert에게는 희망이요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죽어가면서 아내를 Andrew에게 부탁하는 것은 성공한 Andrew를 자기와 同一視하고 싶은데서 온 發想이며 그것은 더 나아가 神과의 合一을 꿈꾸는데서 緣由한 발상일 것으로 본다.

文學이 인간과 자연을 同化하려는 衝動의 所産이라면 文學의 모든 형식은 起原이 있게 마련이며 우리는 더욱 溯及하여 그 血統을 조사할 수 있다고 Frye는 말한다. 이 共通的인 原型(archetype)을 聖書에서 찾아 *Beyond the Horizon*에 適用시켜 分析함으로써 人間運命의 悲劇的 根源을 喚起시키고 O'Neill이 찾고자 했던 救援의 可能性을 살펴보았다.

16) Eugene O'Neill, *Nine Plays* (Introduction, P. XVii)



Summary

The Archetypal Analysis of *Beyond the Horizon*

Lee Haeng-soo

O'Neill's *Beyond the Horizon* is the story about a young man who can't help bearing a tragic life because of his misjudgement. It is not the God's punishment on an innocent man nor the violence of the environment but his wilful judgement that makes his life miserable.

The fact that his judgement is not based on his true nature and character but on the extempore desire is the problem. The setting of the drama which shows us two lines of roads, an old gnarled apple tree and a snake fence reminds us of the myth of Eden. The ancestors of human beings, Adam and Eve were given the volition to choose the Tree of Knowledge and Death or the Eternal Life. The endless suffering and death has been fallen to the human beings as a punishment, who had misjudged to choose the Tree of Knowledge. But God does not leave human beings to fall to death with their original sin but sends them the savior who sacrifices himself for the transgression on men.

O'Neill wanted to give a satisfying new God for the surviving primitive religious instinct to find a meaning for life in and to comfort its fears of death instead of his old belief that he discarded before.

Robert, the hero of *Beyond the Horizon*, who had made an irrevocable decision to remain on the farm instead of going away beyond the horizon in quest of the mystery and spell of the East could not adjust himself to the farmland and has led a miserable life with Ruth until his lungs are terribly affected. But he finally seemed to arrive at the realization that all our suffering has been a test through which we had to pass to proves ourselves worthy of a finer realization. And he seemed to find out the savior through which he could overcome the fear of death and suffering.